



학동 붕괴사고 국토부 조사 23일 광주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지 14일이 지난 가운데 붕괴 건물에 앙상한 뼈대를 드러냈다. 이날 국토부 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들이 사고현장 건물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비전은 없고 일회성 이벤트만 거꾸로 가는 광주시 관광정책

관광재단 설립 1년 지나도록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못해
5기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 회의
“관광객 유치 목표·계획조차 없어”

전국 자치단체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치열한 관광산업 활성화 경쟁에 돌입했지만, 광주시의 관광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광재단을 설립한 지 1년이다 지나도록 관광활성화를 위한 그랜드비전은 마련되지 않고, ‘보여주기식’ 이벤트 정책만 수두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관광재단 내부에선 광주시가 관광재단 설립 후 자신들이 해야 할 공모업무 등 자질구레한 관광 관련 업무 등을 재단으로 떠넘기는 바람에 재단 설립 목적인 관광 전문성은 사라지고, 시청 관광 관련 부서 심부름을 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23일 광주시와 광주관광재단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광주관광 활

성화 방안 및 관광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5기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에서 광주시와 관광재단의 관광 정책을 우려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9명 중 16명이 참석했으며, 남성숙 광주관광재단대표가 랜드마크 발굴 및 예술관광 추진상황 등을 주제로 광주 관광 정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남 대표는 지난해 7월 관광재단 출범 후 올 1월 예술관광사업단 출범을 통해 예술관광도시 브랜드를 정립하는 비전을 선포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 2021년 비엔날레 여행의 해 공표 및 운영, 광주에 숨어있는 개관, 예술여행 대표도시 포도존 조성, 주간광주여행 웹진 발행 등 SNS 등을 활용한 홍보 및 브랜드 확산, 광주관광 로고송 제작(트롯, 가요 버전), 관광 네트워크 강화, 콘텐츠 발굴 및 관광상품, 관광전문기업 육성 및 생태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으로는 예술관광상품 팝업 스토어 운영, 예술여행 거버넌스 운영 등 두가지 사업을 내놨다.

하지만, 남 대표의 이날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를 지켜본 위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참석 위원들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 계획과 목표 등 기본적인 비전을 담은 정책조차 없다”며 광주 관광을 이끌

랜드 비전부터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한 위원은 “사실 지난해엔 관광재단이 출범 초기 인 점을 고려해 좀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1년이 다 지나도록 가장 기본적인 국내외 관광객 유치 목표나 계획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이번에 발표한 성과만 보더라도, 대부분 단순 행사와 SNS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 뿐이고, 서류상에만 실적이 있는 이른바 ‘페이퍼 정책’이 가득하다”며 “현재 관광재단에서 처리하는 업무도 기존 관광 관련 유관기관의 업무를 사실상 빼앗아 온 것이 많고, 시 관광 관련 부서에서 하기 싫은 일을 떠맡는 등 사실상 전문성조차 없다. 재단 설립 후 기존 관광 관련 유관 기관의 불만도 크다”고 했다.

이에 대해 남 대표는 “지금(비전 등) 말할 단계는 아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반박하고 위원들의 말까지 가로막았다.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는 게 회의 참석자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관계자는 “관광 정책과 관련한 일부 위원들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여러 의견 등을 종합해 관광재단과 함께 광주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1년 앞두고...달아오르는 지방선거

금품 허용 제공·당비 대납 등
전남지역 조사·수사 벌써 7곳
공직자·기관장 사직도 줄이어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1년가량 남겨두고 전남 22개 시장·군수 선거전이 벌써부터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관리당원 당비 대납, 선거구 주민 금품·향응 제공 등의 의혹이 제기돼 선관위 조사, 경찰 수사가 이뤄졌거나 진행 중인 선거구가 벌써 6곳에 이른다.

또한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전남도청 고위공직자, 산하기관장들의 출사표가 이어지며 관기도 술렁이는 분위기다. <관련기사 3면>

23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6월 1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8건의 선관위 조사가 이뤄졌다.

나주·구례·고흥·장흥·함평·신안 등 시장·군수 선거 관련 7건, 나주시의원 선거 관련 1건이다. 세부적으로는 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 5건, 업적 홍보 등 사전선거운동 관련 2건, 여론조사 공표 부정적 사례 1건 등이다.

구례군수 선거와 관련해선 기부행위 관련 선관위 조사가 경찰 수사로 번졌다.

구례군수 선거 관련 기부행위 의혹 신고가 2건 접수됐는데, 선관위 조사를 거쳐 1건은 구두경고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 1건은 사안이 중하다는

판단 아래 수사기관 이첩 조처가 내려진 것이다.

나주에서는 관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특정 시장 후보 측이 당비를 대신납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선관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나주시장 선거의 경우 현직 시장, 청와대 정무직 공무원, 전현직 도청 고위공직자, 전직 소방서장, 도의원 등 15명 안팎의 입지자가 공천권 확보를 위한 관리당원 모집 경쟁에 나서 22개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 경쟁이 가장 뜨거운 곳으로 꼽힌다. 민주당 전남도당에서도 과열 선거 구로 보고, 후보자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기도 벌써부터 선거 영향권에 들었다. 중랑감 있는 도청 고위 공직자, 도 산하기관장들의 출사표가 예고되면서 후속 인사 등을 놓고 뒤숭숭한 분위기다. 김병주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 이 최근 사표를 내고 나주시장 선거전에 뛰어들었으며, 전동호 건설국장 역시 영암군수 선거에 나서려고 이달 말 공직에서 물러난다. 나주시장 자리를 염두에 둔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 역시 공직 사퇴 시기를 저울질 중이다.

도 산하기관에선 전남도의회 의장을 지낸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오는 8월 임기가 끝나는 대로 순천시장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세웠다. 김재우 전남도체육회장의 경우 광양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굳혔으나 “선거판에 기웃거리지 않겠다”고 체육회장 선거기간 주변에 밝혀왔던 터라 거취 결단을 미루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서도 ‘인도 델타 변이’ 확진자 첫 확인

인천 남동구 가족 관련자

광주에서도 코로나19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광주에서는 국내 감염 18명, 해외 감염 6명 등 모두 24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 중 국내 감염자 1명에게서 인도 변이가 확인됐다. 나머지 23명은 모두 영국 변이이다.

인도 변이 감염자는 지난날 14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 남동구 가족 관련 확진자다. 변이 의심 사례로 분류돼 추가 검사에서 지난 15일 인도 변이 감염자로 분류됐다. 영국변이는 해외 유입 6명, 국내 감염 17명이다.

이날 기준 전국 변이 바이러스 발생 현황은 영국 변이 1886명, 남아공 변이 142명, 브라질 변이 7명, 인도 변이 190명이다.

박항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외국에 비해 낮은 수치이지만 국내에서도 관련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과 충분한 실내 환기, 유증상시 즉시 검사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에서도 이날 현재까지 확진자 가운데 24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 가운데 인도 변이는 5명, 영국 변이는 19명으로 집계됐다. 인도 변이는 네팔에서 입국한 1명 이외에는 모두 국내 감염으로 조사됐으며, 영국 변이 감염자들은 나주 시리아인 11명, 영암 이슬람교 7명 등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중흥건설
HOBAN

계림 8구역

광주 그랜드센트럴 임대주택

- 1 만 19세 이상 1세대 1건 세대 전원 무주택자 신청가능
- 2 공고승인일 이전 광주·전남 3개월 이상 거주
- 3 10년 장기일반민간임대아파트

(2년마다 계약갱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정한 입주자 요건 참조)

6월30일 청약 신청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농협중앙회 대인동지점

39㎡형 임대주택 / 총 210세대

임대문의

062) 222.2339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CG이미지는 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단지와 주변환경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이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차 등에 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상기 지도는 이미지로 작업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랜드센트럴 임대아파트는 계림8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추후 (주)중흥디피로 사업권이 변경됩니다. 계림8구역 그랜드센트럴 임대아파트

인터넷접수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https://www.applyhome.co.kr)

견본주택 OPEN
코로나로 인한 예약제 운영